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

단 12:3

예정 속에 태어난 성광교회는 목회 할 생각도 하지 않은 자를 불러주셨고 교회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단 12:3 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교회가 예정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시 139:16)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교회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들도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며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데 부르신 분이 있으면 그 부르신 분이 부른 자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러도 능력이 없어 책임 질 수 없고 헛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 1: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태양은 은하계에 속한 조그마한 별인데 우리가 속한 은하계 별들만 해도 1 천억 개가 된다고 그러합니다. 이런 1 천억 개가 되는 은하가 우리가 사는 우주에 천억 개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며 만물을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막 4:39)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막 4:41)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 예정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렘 33:3)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시 81:10)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만약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난 다음 우리보고 이제부터는 “네가 이루어라” “네가 채우라”고 하시면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비해 놓았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미리 정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다가와도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 하시고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데 앞에 홍해가 막히든 애굽 군대가 쳐 들어오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만나가 비와 같이 쏟아진 것입니다. 하늘양식이 내려오되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 년간 계속해서 하늘양식이 내려와서 삼백만이 세끼를 매일같이 먹으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 갈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어떤 대책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선택 받음을 믿는다면 담대해야 한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모지스 할머니로 알려진 안나 메리 로버슨(Anna Mary Robertson)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농장을 꾸리며 아이들을 키웠던 안나 메리의 취미는 바느질이었는데 나이가 든후 관절염이 생겨서 바느질을 하기 힘들어지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6 세였습니다. 제대로 된 그림공부를 한적이 없는 모지스 할머니는 그저 눈에 보이는대로 농장의 풍경, 풀길, 눈길 등을 그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단순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할머니의 그림은 수집가 루이스 칼러의 눈에 띄게 됩니다. 루이스 칼러와 큐레이터 오토 칼리어의 손을 거쳐 뉴욕 화랑에 전시된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그림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 전시되었고 1960 년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가 할머니의

100 번째 생일을 기념해 '모지스 할머니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76 세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때부터 101 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모지스 할머니는 '여성 프레스클럽 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my life's history'라는 자서전까지 출간하기도 한 미국의 국민 화가로 사랑 받았습니다.

꿈을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을 보세요. 그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려 13 년 동안이나 종살이로 감옥의 죄수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형제를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일로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불잡고 기다린 결과 그는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기고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산을 넘은 사람에게 그 다음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걸릴 돌도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꿈을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꿈과 환상의 세계는 3 차원이 아니라 4 차원의 세계입니다. (막 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감사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1-3 절에 하나님의 예정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이런 뜻을 정해 놓았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절대 주권자가 예정한 사실입니다. 이 예정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복을 주시고 예정에 거역하면 파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신 30:1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 30:16)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신 30:17)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신 30:18)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신 30:19)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신 30: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서를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하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갖추면 실타래처럼 인생이 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인생에 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리 인생 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세상 일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절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처음 우리교회에 주신 사명을 항상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성광교회는 창립 때부터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해 태어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도 성광 성경 단 12:3 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교회의 비전을 10 년만에 80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했는데 실제 처음 파송은 교회가 창립되고 5 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 주년이 되었을 때 80 명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나는 어떠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4. 우리교회의 비전 말씀을 함께 외워보세요. 우리 성광교회의 5 대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5. 우리교회 오셔서 경험한 신앙생활(믿음)의 변화를 나눠 주십시오.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교회를 소개하는 연습을 상호간에 해 보시길 바랍니다.